

“편견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시급 (중)거주실태

광주·전남 8,800여명...관리대책은 미흡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소통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8,8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하다. 일부 질환자가 일으킨 범죄 때문에 숨죽이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는 지난 4월말 기준 3,079명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지

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728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센터와 시·도청에 등록된 수일뿐 병원의 자료제공 거부,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센터의 관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리사각에 놓인 일부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김 모씨(54)는 “정신질환자들을 무조건 감옥과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절대 해결책

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처럼 정신질환도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을 겪고 싶은 환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며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중 환자인 권 모씨(57·여)는 “고3 때 발병된 이후 나주정신병원 등

병원에만 20차례 이상 입원을 했지만 정신병원 입원은 그저 사회에서 격리만 될 뿐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평소 인사를 하던 이웃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오해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송광정신재활센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성소수자·장애인·알콜중독자 등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사회적 편견이 덜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게 현실이다”면서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을 봐주면 좋겠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6~24	흑산도	16~22
담양	16~25	구례	15~26
화순	16~24	곡성	15~25
영광	16~23	완도	17~23
함평	16~24	강진	16~23
무안	16~22	장흥	16~24
영암	15~23	해남	15~23
진도	15~23	고흥	15~23
신안	17~23	보성	15~23

일출 05:18 일몰 19:47
월출 13:22 월몰 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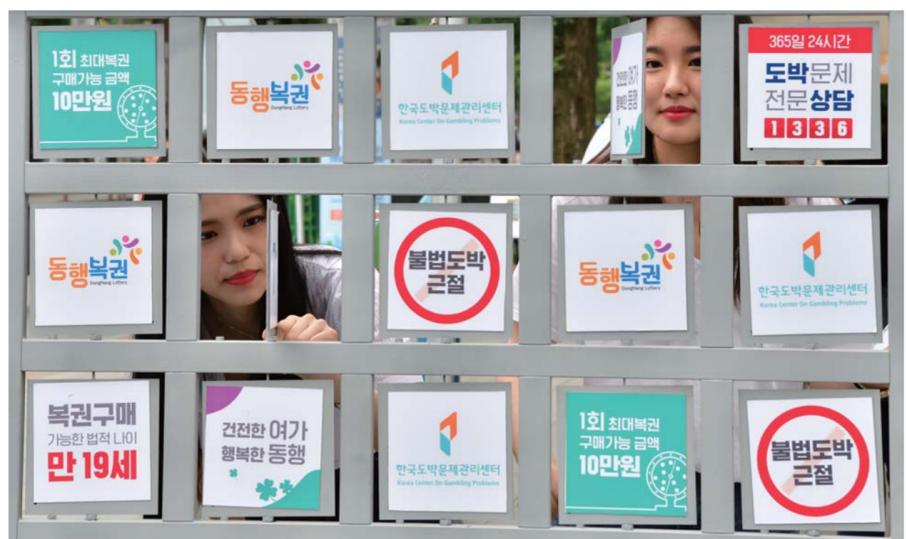
목포	만조 08:36 21:09	여수	만조 03:27 16:24
	간조 01:06 14:03		간조 09:53 22:1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경찰, 여수 거북선 추락사고 수사 착수 시공사·여수시 상대 안전문제·사후관리 조사

경찰이 여수시 이순신광장 거북선 조형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부서진 나뭇조각을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014년 2월 거북선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 참여했던 시공사를 상대로 시공 당시 상황과 설계상 안전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거북선을 관리하는 여수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거북선이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설치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나무계단이 교체된 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구조물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나무계단이 부서진 것이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당분간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안전문제가 없었는지와 사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락사고 책임여부를 가리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8시 44분께 여수시 이순신광장의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계단참이 파손돼 7명이 3m 아래로 추락해 5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거북선 조형물은 지난 2014년 2월 이순신광장에 설치됐으며, 지난해에는 60여만명이 관람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도박중독예방 캠페인 1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가 전남대 후문에서 실시한 도박문제예방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같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병원 헌혈 줄 선 시민에게도 헬기사격”

전두환 재판 증인들 5·18 당시 목격 증언

전두환씨(88) 사자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에서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0일 201호 형사대법정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 6명의 진술을 진행했다. 광주간호원보조양성소에 다니며 당시 광주기동병원 실습생인 최윤준씨(56)는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헌혈하려고 병원 정문

에서 응급실 쪽으로 줄 선 시민들을 향해 헬기 한 대가 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헬기가 낮게 날더니 총소리가 들렸고, 총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당시엔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에도 총을 쏘던 시절이다”며 “헌혈하는 사람에게 헬기에서 총을 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총소리가 빈번했고 총상환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수만(73) 전 5·18 유족회장도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회장은 “서석초교 쪽으로 갔는데 공중에서 총소리가 났다. ‘팡팡팡, 팡팡팡’ 연발이 아니라 단발 소리였다”며 “머리 위로 헬기가 방방 도는 것을 보고 뛰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인으로 나선 홍성국씨(57)·최윤용씨(75)·신혁씨(61)도 옛 전남도청과 광주천 사이에서 헬기 한 대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고광민 기자

민물고기연구소 화재...수백만원 피해

10일 오전 11시 47분께 장성군 장성읍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398㎡ 면적인 먹이생물배양동 내부 빈 수조 등 설비와 40㎡가량을 태우고 약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6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진도 해상서 시신 발견...해경 수사

진도 해상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 앞 해상에서 선장 A씨(56)가 시신이 바다에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전복 가득인 양식장 뜬새에 끼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173cm의 키에 회색 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도·최규욱 기자

덤프트럭-화물차 충돌...6명 부상

10일 오전 6시 31분께 영광군 대마면 한 교차로에서 15t 덤프트럭과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김 모씨(39), 화물차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5명 등 모두 6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순천서 오늘 여순사건 재심 시민설명회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시민설명회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에서 열린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재심대책위)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전개 상황과 재판의 핵심을 공유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시민설명회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대책위는 오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과거 재판기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근거자료를 통해 당시 민간인 학살이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었고,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방자해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짜~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편백나라 효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25 WELLNESS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강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뜸효과

편백나라 효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핀,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효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 25선” 선정 (광주 단 1곳 선정) 기념 세일!

웰니스25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전주 각 1개소 150평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